박근혜 정부 중소기업 정책 지방은 '봉'

민주 김동철 의원 지적

정책자금 지원 지방 줄이고 수도권 늘리고

中企 휴·폐업률 호남이 수도권의 7배 높아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지방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추진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물론 대기업과 지방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심해져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호남을 비롯한 지방의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휴·폐업률이 수도권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창업교육, 수도권 몰아주기=9일 민주당 김동철(광주 광산 갑)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7개 정부 정책자금 지원 비중을 수도권 35%, 지방 65% 수준으로 유지해왔지만, 최근 지방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63%로 2%포인트 축소했다.

수급 불균형을 이유로 지방기업 지원비율을 낮춘 뒤 이를 수도권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정책자금 규모는 총 4조8700억원 규모에 달하지만, 이번 정책자금 비율 축소로 지방에 지원되는 액수는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5년간 지원된 정책자금 규모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5조8956억원에 달한 반면 호남권은 1조9369억원에 그쳤다.

영남은 수도권에 비해 조금 낮은 5조7967억원, 충청권은 2조2190억원이 지원됐다. 강원·제주권은 4631억원이 지원되는 데 그쳤다.

특히 정부는 최근 지방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수요가 왜 하락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지자체가 정부 대신 자금공급을 확대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지자체에 떠 넘기려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교육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입학생의 경우 2012년 이후 수도권 출신이 76%에 달한 반면, 호남(9.8%)을 포함한 지방은 24%에 그쳐 중소기업 창업교육마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교육한 뒤 창업에 필요한 자본금의 70%를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휴·폐업률도 지역이 높아=지난 2008년 이후 6년 동안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의 연평균 휴·폐업률도 호남권(1.5%)은 수도권(0.2%)의 7배에 달했고, 매년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전봇대 뽑기'의 규제개혁을 통해 중소기업 살리기를 홍보해 왔던 영암 대불산업단지의 경우 휴·폐업 업체가 지난 5년 동안 무려 36개에 달했다.

휴·폐업률 또한 3.8%로, 전국 평균 0.2%에 비해 최대 19배가 높았다.

김동철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중심 사업 추진,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등의 장밋빛 약속에도 중소기업 관련 투자의 수도권 집중은 심화하고, 창업교육마저도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지역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휴·폐업은 곧바로 수많은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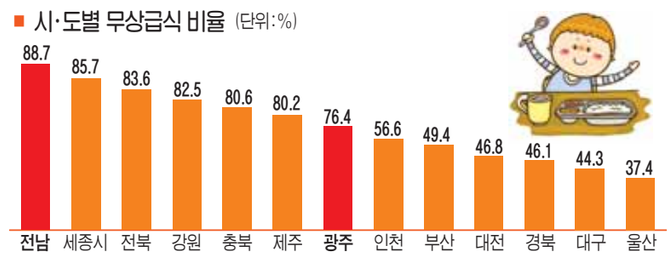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권역별 정책자금 지원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8	5년계
수도권	17,269	11,007	10,302	11,369	9,009	58,956
영남권	18,682	10,536	10,172	10,812	7,765	57,967
충청권	5,953	4,655	4,325	4,263	2,994	22,190
호남권	**5,108**	**3,873**	**3,860**	**4,009**	**2,519**	**19,369**
강원/제주권	1,104	913	905	1,040	669	4,631
합계	48,116	30,984	29,565	31,493	22,956	163,114

〈자료:중소기업진흥공단, '13.9〉

광주 하남산업단지 전경

■ 시·도별 무상급식 비율 (단위:%)



〈자료: 민주당 박혜자 의원〉

"보훈처도 조직적 대선 개입"

지난해 20만명 안보교육 통해 DJ·노무현 대북정책 비난

민주 강기정 의원 의혹 제기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9일 국가보훈처가 안보교육을 통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보훈처가 지난해 총선 직후인 4월25일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단 워크숍'을 시작으로 조직적으로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총선과 대선이 있는 민감한 시기에 국가기관이 나서서 종북좌파 운운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자료를 만들고 보수단체로 하여금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게 했다. 이는 명백한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보훈처가 당시 전쟁기념관 내 뮤지엄 웨딩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제시한 강의자료집(표준교안)에는 "6·15선언과 10·4선언은 북한에 대한 대대적 지원과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주장이 담겨 있다", "북한이 남한의 돈, 쌀을 본격적으로 빨아들인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사회 곳곳에 파고든 종북·친북세력은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낼 선전능력을 갖추고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위험물질로 둔갑시켜…" 등의 내용의 담겼다.

자료집에는 또 "(미 국방대학(NDU) 산하 국가전략 연구소(INSS)의) 보고서는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통일과 안보위협 제거의 역사적 기회가 되겠지만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추진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진보정부가 들어설 경우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 반면 보수정부라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고 소개하는 등 정치 편향적 내용이 담겼다고 감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보훈처는 워크숍에 참석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이하 국발협), 나라사랑운동본부(이하 나사본),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 강사진과 이 강의교재를 활용해 산하 지청에서 1411회에 걸쳐 20만여명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정원에 이어 국가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훈처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9조, 85조, 86조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무상급식 비율 전국 최고

민주 박혜자 의원 분석, 광주는 광역시 중 가장 높아

광주와 전남지역의 학교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문위 소속 민주당 박혜자 의원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무상급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88.7%인 전남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37.4%인 울산이었다.

전남은 초등·중학생 전체 및 읍(동) 이하 고등학생,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 가장 높은 무상급식 비율을 보였고 이어 세종시(85.7%), 전북(83.6%), 강원(82.5%), 충북(80.6%), 제주(80.2%) 순이었다.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 전체,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광주광역시도 76.4%의 비율로 서울시와 6대 광역시 중에서는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무상급식 비율이 낮은 지역은 울산을 비롯해 대구(44.3%), 경북(46.1%), 대전(46.8%), 부산(49.4%), 인천(56.6%) 등이었다.

17개 시·도 중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시·도는 광주·세종·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제주 등 8곳이었다. 반면 초등학교 전체 학생에게조차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지역은 서울·부산·대구·대전·울산·경북·경남 등 7곳이었다.

박 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한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극심했다"며 "헌법에 무상의무교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불평등이 초래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급식에만큼은 우선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삼라만상이 담긴 얼굴, 운명을 볼 수 있을까

김은영의 '그림 생각'

(47) 관상

변상벽 작 '윤급(尹汲)의 초상'

한국 영화를 본 관람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억 명을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개봉된 영화 '관상'도 관객 천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날로 진화해가는 한국 영화의 저력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영화 '관상'에서, 왕위를 빼앗으려는 반역자를 사전에 색출하려고 관상쟁이에게 초상화를 통해 관상을 보게 하는 장면이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 그림을 통해 관상을 볼 수 있는 인물화를 가진 나라는 없을 것이다. '터럭 한 올이라도 같지 않으면 곧 다른 사람이 된다(一毫不似 便是他人)'는 우리 초상화의 사실정신은 터럭 하나 다르지 않은 외형 묘사로 그 사람의 삶과 내면까지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초상화의 '정직한 화법'은 '초상화 관상법'으로 선조들의 질환을 밝히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성낙 가천대 명예총장은 1980년 세계 피부의학계 심포지엄에서 '조선시대 초상화에 나타난 피부병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해 세계 의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 예로 조선 시대 영조의 어진을 그렸던 화원화가 변상벽이 그린 것으로 추정하는 문인 '윤급(尹汲)의 초상'은 양미간 주름과 검버섯, 턱 부분 사마귀, 뺨의 붉은 홍기 등 세부적인 피부의 특징까지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이 밖에도 초상의 얼굴을 통해 천연두, 백반증, 홍반성 루푸스, 흑달, 검버섯 등 피부병과 병력을 추적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다.

우리의 얼굴은 말 그대로 '얼'이 통하는 골이 모여 있는 곳, 얼의 꼴에서 비롯되었다 한다. 그 때문에 얼굴에 삼라만상이 담겨 있다는 해석도 있다. 얼굴에서 정말 운명을 볼 수 있는 것일까? 관상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이 시대에도 여전한 것은 인간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약한 존재여서 그러는지 모른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낯日만평

- 김종두

이러니 속이 안 뒤집어지겠나?!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12276-06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1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1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14419-3388 선릉점(선릉역 2번 출구):0213565-183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홍국생명 앞):0318821-6655 안양점(벽산스필2001 아울렛 앞):03148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7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9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9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2029-4400 남양주점(광내 호평역 앞):0700822-9903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0557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426-1511 남일동점(이카데미극장 옆):0534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4-5110 안동점(구 안동농고네거리):0544659-2248 광주 광주점(금남로 4가역 사거리):062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36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63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562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76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7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753-4388

세계적 권위의 인증!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국제품질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점(금남로 4가역 사거리)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